

선의 소식

Sunny Korea News

2015년 | 33호 |

두근두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세요.

계좌후원


국민은행 046-01-0243-154
(한국선의복지재단)

 서울 용산구 청파로 383-10 (서계동 22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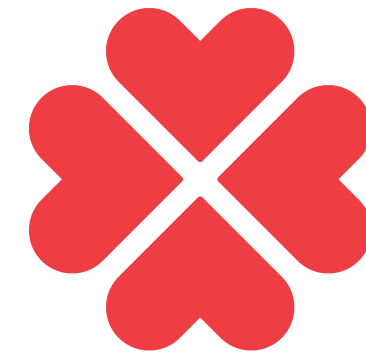
 www.sunnykorea.org

 goodwill@hanmail.net

 facebook.com/sunnyfoundation

 02-704-5510

 02-884-5512



선의재단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이웃을 위한 은행, 선한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는 선의은행을 아시나요? 선의은행은 큰 돈이 아니더라도 선한 마음을 모으면, 이웃에게 힘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아주 특별한 은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능을, 어떤 이들은 기술을, 어떤 이들은 기도와 물질을 예탁하면,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찾아내어 선의를 전달하는 일을 해 온 곳이 바로 선의은행입니다. 굶는 이들에겐 밥을,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부부들을위한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선의은행은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한국선의복지재단 또한 더 많은 이웃을 찾아가고 더 많은 아픔을 품기 위해 선의은행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수술을 지원하고, 가난한 지역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면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오늘도 선한 마음을 배달합니다.

차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Nguyen Hoang Anh을 기억하며 ...	04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과 함께한 2년	06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사후방문 후기	08
2015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원 인터뷰	10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	12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사업	14
미국 뉴라이프 재단 오케스트라 협력 사업	15
선의의 꽃을 피우는 일	16

생명을 살리는 일

한눈에 보는 한국선의복지재단 해외사업	18
한눈에 보는 한국선의복지재단 국내사업	20
2015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22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감사의 글	26
조직도	28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걸어온 길	29

함께 생명을 살리는 분들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원 기관	30
후원보고	31
해외결연 아동 현황	32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33

Nguyen Hoang Anh을 기억하며 ...



2007년에는 유독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심장수술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해에만 55명의 아이들이 왔었고, 베트남 남부지역에서만 20명의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그 중 호치민 남쪽 Ben Tre 지역에서 왔던 황안 이라는 아이를 잠깐 기억해보려 합니다. 2007년 봄, 세종병원의 심장병 무료 진료팀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심장병 무료진료를 겸하여 한국에 수술하러 오게 될 환아를 선정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진료팀과 함께 도착한 룡안의 한국병원에는 수많은 심장병 환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느라 지쳤지만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지체 없이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장병을 진단하는 의사선생님에게 환아를 보내기 전 접수과정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를 잠깐씩 면담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심장내과 선생님에게 보내면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져간 이동식초음파기로 밀려오는 아이들을 한국에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료해주었습니다. 서둘러 접수하는 과정 중에 황안(2002년생, 당시 5세, 남)을 만났습니다. 부모는 없고, 목에 머리통만한 커다란 갑상선혹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왔는데 한 눈에도 아이가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아이들이 대기 중이었기에 머리와, 손과, 눈을 모두 빠르게 움직이며 아이들의 접수지를 작성

하는 상황이라 오래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1초였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다운증후군 아이인데 기왕이면 다른 아이가 수술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미처 생각을 끝내기도 전 밀려오는 많은 아이들로 황안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13일. 심장병 수술을 위해 입국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마중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입국게이트로 들어섰는데 그 아이들 중에 황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호치민 룡안 병원에서 만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황안 이구나 정말 lucky한 녀석 일세”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복합장애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해에는 아이들이 물밀 듯 입국하였으므로 정신 차릴 틈이 없었고 짧은 생각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황안을 포함해 함께 온 아이들의 수술이 모두 끝나고 회복기도 순조로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병실은 행복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장병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걱정도, 근심도 모두 사라졌으니 그저 마음껏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황안의 할머니 목에 여전히 남아있는 머리통만한 갑상선 혹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날 2007년 9월 11일 저녁, 화요일. 아이들은 수술 후의 행복함을 만끽하며 병실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안에게 공 던지기 놀이를 하자 했더니 황안이 공을 던지고는 떨어지는 공에 머리를 맞고 울고, 울면서 공을 주워 던지고는 또 맞고 울고, 던지고 맞고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심성이 매우 온순하고, 유쾌하고 착하며 단순하여 시킨 대로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황안에게 “공 던지고 떨어지면 받기 놀이를 하자” 가 아닌 “공 던지기 놀이를 하자”고 했기에 공을 던지고는 연거푸 머리를 맞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어찌나 우스운지 할머니와 함께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황안은 훌쩍훌쩍 울고 있었지만 그 때는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행복한 그림안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이 다시 들려 왔습니다. “딸아 이 아이다! 내가 가장 데리고 싶었던 아이가 황안이다!” 저는 그제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고 온 몸과 맘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당황과 감사 중에 “네, 하나님,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크다고도 작다고도 할 수 없고, 강하다고도 약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음성은 아주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아주 큰 울림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마치 가lesi지만 매우 강한 금실하나가 가슴을 꿰뚫고 간 것처럼 강렬하고 분명했습니다. 황안을 처음 룡안 병원에서 만났을 때 획 지나갔던 1초의 생각, 황안을 두 번째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획 지나갔던 1초의 생각, 두 번 모두 진지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오래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후로는 그 생각을 가슴에 담아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 생각을 올린 건 더더욱 아니었는데 그 분은 내 마음 다 알고 계셨고 스치는 제 생각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으신 건지, 어떤 아이가 그분께는 가장 귀한 아이인지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딸인 내가 알았으면 하셨고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같길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 아이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하셨는지 아주 짧은 한 순간 다 알아버렸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 55:8)

그 저녁 병실에서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날이 화요일이었으므로 화요일기도모임에 가기 위해 부천세종병원에서 나와 용산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평 울면서 기도회에 도착해서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의자에 앉으니 다시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나서 기도회 내내 계속 평평 울

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닿으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선의재단에서 심장병무료수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 분이 정말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원래 그럴 거라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 내 마음에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생각까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그 뿐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으신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싶으신 건지도 분명하며, 선의재단에서도 그 분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는 이후로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욱더 내게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르고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이므로, 특히나 황안은 내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고 그 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2015년 9월. 13살(한국나이 15세)이 된 황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몸은 어느새 자라서 수영도 거뭇거뭇 나고 총각 티도 물씬 나는데 오리처럼 입을 꼭 내밀고는 반갑다고 제 뺨에 뽀뽀를 해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었는데 내게 황안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뭔가 기억이 나는 건지 자꾸 한국에 따라가겠다고 달라붙는 걸 떼어놔야 했습니다.

황안은 심장수술 이후 매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다운증후군이 있으니 총명해지지도 않았고 아마도 40을 넘기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사실이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건 고사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못하고, 자기 생각 한번 똑바른 발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침도 흘리고, 밥도 흘리고, 시선은 산만하며 장차 월급 봉투한 번 받아오지도 못할 테지만, 그러나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제일 데리고 오고 싶어 하셨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음을. 그러므로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아이임을. 별과 같은 아이임을.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과 함께한 2년



2013년 6월, 처음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지만, 라오스는 모든 의료지표가 너무나 열악한 나라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나 5세이하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장비도 부족하며, 의사와 간호사 역시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쉽게 치료받고 아무 문제없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자라났을 아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Lao P.D.R.	대한민국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s and females, years)	65 / 68	78 / 85
Infant mortality rate (per 1 000 live births)	54	3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71	4

하여, 2013년 여름부터 라오스 아동병원 (Children's Hospital, Lao P.D.R.)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아동병원은 라오스의 유일한 소아과 전문 국립병원으로서, KOICA (Korea International Co-

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에 개원하였습니다. 70병상 규모의 비교적 작은 병원이지만, 매일 1만명 이상의 방문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라오스 국립의대 학생 및 인턴,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라오스의 유일한 소아 전문 진료기관이자 교육기관입니다.

한국에서의 내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심장 분야를 조금 경험해본 덕분에 라오스에서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00명 정도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찾았고, 한국에 계신 여러 분들이 라오스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100여명의 어린이들 중에 벌써 26명 정도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 중에 수술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이 늦어질수록 합병증과 사망률이 증가하며, 수술 시기를 놓치면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은 질환입니다. 제가 라오스 아동병원에서 진료했던 심장병 어린이들 중에도, 진단과 치료가 너무 늦어져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라오스의 시골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근처에 심장병을 진단해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해서 부모나 친척들이 병원을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일하는 아동병원을 찾아 오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너무 위중한 상태로 찾아와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의사로서 라오스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환자를 떠나 보내야 할 때의 안타까움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는 꼭 살려내야지'라며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또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라면 진단에 진단이 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아서 건강히 지냈을 아이들이, 라오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줄 경우, 심장병을 앓았던 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복지재단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명, 5명씩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도와주셔서,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몇몇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의사들이 포기했던 아이들입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이송해도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많은 의사들로부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던 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의복지재단에 감사 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선의복지재단에서 주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후원 기관들이 "수술이 쉽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후원해주는 상황과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선의복지재단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라오스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심장 분야에 대해 좀더 깊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마음 보다는,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뒤로하고 귀국을 하게 되어,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귀국한 뒤에도 라오스 아동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진료가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오스 의료진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심혈관질환에 대해 열심히 알려주고, 몇몇 유능한 라오스 의

료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스스로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지원사업이 이후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라오스 아동병원의 의료진들을 여러 한국의 기관 및 단체에 소개하고,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명단과 검사 데이터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병원 및 사회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갖춰져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수도를 제외한 라오스 대부분의 지역은 너무나 열악해서, 라오스 시골 아이들 중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의료 검진을 못 받아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생업을 수일간 포기하고 수도에 있는 아동병원을 찾아올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이 드물고, 입원비 및 치료비 역시 대부분의 라오스 가정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거나, 진단이 되어도 치료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라오스에서의 노력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이면 방치되어 있던 라오스 심장병 어린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수술만 적기에 받는다면 도움을 받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도움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돌보는 라오스 의사들 역시 희망을 갖고 진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금씩 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치료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많은 라오스 의사들이 환자를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과정이, 언젠가는 라오스 의료진들이 스스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KOICA 라오스 국제협력의사 | 황인창

다시 만난 아이들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사후방문 후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도 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하이퐁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오번(Pham Thi Tao Van)과 부수안 썬(Vu Xuan Son)은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무사히 받고 베트남으로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이제 네 살이라 아직 철 모르는 파오번과는 달리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인 부수안 썬은 어딘가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황을 물어보니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에 가야 하지만 등록금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7년,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 제의를 받았을 때, 부수안 썬은 처음에는 한국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앞을 잘 못 보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수안 썬의 어머니는 아들을 얹혀놓고 설득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 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수안 썬은 한국에 와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아들을 본 후 어머니는 결국 아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수안 썬의 할머니도 중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처음부터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알아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사촌들과 살고 있다고 하니, 만약 할머니가 없다면 부수안 썬은 소년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넉넉한 집안 환경이 아니니 살아가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희망과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해간 선물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머니 클립이었습니다. 중학생 포레의 남자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알기가 어려워서 고심하다가, 친구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으며 선물을 받는 아이의 눈이 어쩐지 슬퍼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수안 썬에게 어린 동생인 파오 번에게 줄 수수깡 인형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만 싫지는 않은 표정입니다. 함께 수수깡을 자르고 물을 묻혀 붙이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연신 잘 한다고, 고맙다고 하더니 수줍은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이 아이의 눈에 기쁨의 빛이 보입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이 아이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들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후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잘 마친 것 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지만 저 아이들은 여전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만으로도 부수안 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이루어진 작은 일을 통해 또 다시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저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책임감에 응답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종편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천성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을 가진 종편(Nguyen Trong Tin, 1996년 생)은 2010년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 좀 더 체류할 거처를 찾던 중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게 되면서 종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편이 앓고 있는 병은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병으로 벽 모서리에 부딪히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달걀 껍데기처럼 부서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이 태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걸음을 떼어본 적이 없다는 종편은 15살 때는 1m도 되지 않는 키에 30kg도 되지 않는 작은 몸집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2013년 6월,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종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종편의 2차 수술은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허리부터 발목까지 통깁스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종편은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풀고 재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水)치료를 통해 처음으로 두 발로 손잡이를 잡고 서는 연습을 하며 재활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고 걷는 것은 무리라는 의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 안에서 잠시라도 서 있었다는 기억은 종편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은 종편의 삶에 긍정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2015년 9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인술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종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대입시험에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는 종편은 이제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뭐든 도전하고 싶고 어려움을 정복해 내고 싶다는 종편의 꿈을 들으며 종편 안에 있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편이 희망하는 IT학과 정보안전 분야에 입학하여 희망찬 꿈을 펼쳐 나가길 응원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홍보부 | 이용희

2015 월드 프렌즈 NGO봉사단 인터뷰



Hello! 하노이

KCOC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2015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수정 단원’을 소개합니다. 베트남 하노이까지 달려간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파견국가 | 베트남 하노이 썩선현 · 지원분야 | 보건행정 봉사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썩선현에 봉사단원으로 파견된 한수정(23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으로 1년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오가는 와중에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취업에 대한 압박에 있었는데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면서 학창 시절부터 꿈꾸고 바래온 일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잡아주신 선의재단과 함께 지금은 3개월 째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직 꿈 많은 청년입니다.

지금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저는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36km 떨어진 썩선현에 위치한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하노이에 있는 선의병원과 한국에 있는 선의재단 사이의 빠른 의사소통 위한 일종의 커넥터 활동을 하고 있고 병원 행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병원 내 활동을 기록하고 함께 일하시는 정덕천 선생님을 따라서 가정방문 활동과 1:1 아동결연 장학금 전달 그리고 7차 째 진행된 무료 이동진료를 함께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2년을 함께한 선생님과 함께 요양원 봉사, 1:1 아동 후원을 같이 하면서부터 봉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글이 아닌 직접 활동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을 함께하면서 선생님은 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 주셨습니다. 혼자자 아니라 함께라는 인식을 여러 활동을 통해 심어 주었고 그 활동이 거창한 것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가장 고마운 친구에게 진심과 정성이 담긴 마음을 표시하는 일, 환경봉사 등 반 안에서도 늘 끝임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내 진심을 다해 나누는 것이 내게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나눔이 언젠가 나에게 정말 큰 힘과 더 큰 사랑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봉사는 쌍방향 의사소통 인 거 같아요. 내가 판단 하에 그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수혜자 또 한 당연하듯이 우리의 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면서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까지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일이 수 없이 많은 텐데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오히려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마음가짐에 정말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을 받고 이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 자체 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이 활동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가족도 친구도 없는 타지에 과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선의복지재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가지 확신 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원을 생각해주는 마음만큼은 변함 없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받은 사랑과 믿음을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헛된 시간이 아닌 정말 활동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했던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 월드 프렌즈 NGO봉사단원 | 한수정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동네 살아가는 이야기

복지관은 옛 부터 지금까지 주로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청소년, 어르신, 한 부모 가정 등을 도왔습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곳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온갖 흉흉한 소식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이웃 간에 층간 소음으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다툼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더 무섭다는 말이 곧잘 나오는 사회가 현 한국사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약자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복지관이 있는 동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뽕뽕 문을 닫고 이웃과 소통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 집에만 데려다 준 다음, 집에만 있는 삶을 6년째 살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상처받아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에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야밤에 아이를 잠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밤에는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일들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주변 동네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재개발이 떨어지지 않아 이미 변화된 주변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거주환경이 열악합니다. 좁은 골목길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도 없는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이 먼저 이웃들이 모일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제일 좋은 위치, 복지관 1층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밝은 색 벽지와 장판으로 바꾸어서 환하게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랑방으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간을 마련했다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물었고, 요리, 책 읽기, 뜨개질, 캘리그래피, 수채화, 영어소설 읽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의 동아리가 운영되었어요. 5명에서 8명까지 동아리 인원은 각각 다릅니다. 역시나 예상이 적중했어요. 주민들은 단순히 취미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싸온다거나 아이들 작아진 옷을 물려주거나 아이 책, 장난감을 나누었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보내주면, 이렇게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한 봉지씩 나누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1층 햇빛교실이란 공간이 생기자 생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지관 초입인 이 공간이 어두웠는데, 이제 애들 소리도 들리고, 책 읽고, 밝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가 바뀐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을에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요. 또 올해 동아리 하면서 우리 마을이 진짜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동아리를 통해 받은 게 많아서 뭔가 자신도 베풀어야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 있고 좀 예민한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데, 이분들이 복지관으로 나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논다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당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 주민들이 동네에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우울증 있는 주부와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하는 주민 두 사람이 있었어요. 동아리 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분들을 불러서 함께 부침개 부쳐 먹고, 아이들끼리 놀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약자를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 햇빛교실 개방 이 모두가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한 일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약자와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동네의 가능성을 보았고,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장 | 이가영

봉사자 이야기

행복식당의 강점 봉사자! 임순례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이 늙은이 ‘선생님’소리도 듣게 해주고, 마냥 고마워!”

‘행복식당’에서는 매일 점심을 짓습니다. 대략 50여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신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곳 행복식당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강점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이끄는 요리 동아리 활동이며, 건강을 위한 차에 대한 정보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끄는 차 동아리 활동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만큼 각기 다른 강점들이 어울려져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다른 손재주로 뜨개질을 잘하셔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신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침침한 눈, 떨리는 손끝에서 꽃을 피우다.

‘임순례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작년부터 뜨개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따금 손수 만드신 뜨개질 작품을 보여주셨던 터라 어르신 손재주가 훌륭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남다른 손재주를 혼자서만 알고 있기엔 뭔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뛰어난 손재주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며 볼품없는 손재주라 하셨지만 복지사의 제안이 내심 마음에 드셨던지 “볼품없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좋은 일이라면 한 번 해보겠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행복식당의 ‘뜨개질 동아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르신께서는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에게 수세미실로 사과 모양, 원피스 모양, 딸기 모양 등의 작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칠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모든 어르신들이 매주, 매주 활동하시며 결과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눈이 침침해 바늘코 끼우기도 힘들다는 어르신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은 하나, 하나마다 더 정성스럽고 더 값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늙은이한테 ‘선생님, 선생님’하고 잘 따라와.



“다들 열심히 해, 너무 예뻐.”

주변 어르신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뜨개질이 입소문을 타고 이웃에게까지 소문이 난 걸까요? 올해 6월부터 매주 화요일, 복지관 1층 햇빛교실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임순례 어르신의 특별강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젊은 주부 이웃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는 어르신에게 뜨개질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이 주변 어르신 뿐만 아닌 젊은 이웃분들에게도 뜨개질을 알려주고 계신답니다.

오전 10시부터 활동이 시작되지만 어르신은 매번 일찍 오셔서 정리도 하시고 이것 저것을 준비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젊은 주부들에게 되려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임순례 어르신.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인사를 받는 활동을 통해 ‘선생님’으로 불리며 새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계신답니다. 어르신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2의 임순례 어르신을 기대하며 어르신들의 강점을 살려드리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홍보부 | 안희원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사업



모든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제가 받은 선물들은 한국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선물들로 저를 감동 시키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다녀오면서 달걀 꾸러미를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 고향은 특산물도 없어서 선생님께 무엇을 갖다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토종 닭이 낳은 달걀을 선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직접 농장에 가서 달걀을 사다가 깨질세라 조심조심 하나하나 신문지로 포장을 해서 달걀 한 상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집은 학교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또 다시 버스로 4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본인 짐도 많은데 어떻게 달걀을 들고 그 먼 길을 올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하다 못해 그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난감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에 감사를 표했는데, 아뿔싸! 학생이 부모님께 선생님이 달걀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는지 그 부모님께서 오시면서 또 달걀을 선물로 가져 오실 줄이야…… 이번 학기에도 180개의 달걀을 선물로 받아 주위 분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지난 학기에는 한 여학생이 본인 고향의 특산물이라면서 메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주었습니다. 체구가 유난히 작고 왜소한 학생인데 장시간 기차를 타고 5Kg짜리 포대를 어떻게 들고 왔을지…… 끔찍대며 들고 오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의 눈엔 그냥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져오는 수고와 깨질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계산하면 그 먼 길에 이런 선물들을 사오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고, 타산이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달걀과 메밀가루 포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랑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늦은 밤,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귀가하는 길,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대학생활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선생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한국선의복지재단에 감사합니다.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강사 | 안종향

미국 뉴라이프 재단 오케스트라 협력사업



음악으로 꿈을 꾸는 뉴라이프 오케스트라

뉴라이프 재단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발전을 지원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2011년에 설립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음악적 재능과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 콩쿠르, 개인 레슨, 앙상을 훈련뿐 아니라 멘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콩쿠르 입상자들은 미국으로 초청되어 미국에 계신 유명 음악인들에게 개인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미국 뉴라이프 팀과 함께 음악 캠프를 통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과 봉사활동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뉴라이프 재단이 청소년들을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나눔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 8월에는 한국에서 열렸던 보육원 학생들 대상으로 주최된 제4회 NLF 음악 콩쿠르에서 선발된 대상자들 중 다섯 명(인솔자 포함 총6명)이 미국 New Life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함께 여름 음악 캠프로 멕시코의 치아파스 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멕시코 음악캠프에서는 치아파스의 가난하고 힘든 지역의 주민들과 교도소를 방문하여 음악으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방문객들이 전혀 찾아갈 수 없는 마을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생애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연주 후에는 미국에서 준비해간 미술과 공작 시간을 함께 갖고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음악 캠프를 통해 NLF 단원들에게도 함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뉴라이프 재단 | 윤혜원

운영이사회의 글



선의의 꽃을 피우는 일

우리 나라가 척박했던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의 거룩한 꽃을 피우는 일에 믿음의 세 여인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가는 걸음 걸음마다 함께 동행 하시므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으며 먼저 이 일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사님들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아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 후원자님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언 몸을 녹이듯이 주님께 구원 받은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에 메여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의 것을 나누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 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세월의 변천 속에 누가 알아 주던 알아 주지 않던 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로 달려온 그 씨앗들이 33년동안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했던 10여명의 이사님들이 이미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져 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눈물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리운 이사님들의 얼굴들이 눈에 아른거려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복지의 단어조차도 생소했던 그 시절에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전셋집을 얻어 주고 독거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반찬을 갖다 드리고 목욕을 시켜 드리던 일,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님들이 일 나가신 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모아 공부방을 만들고 대학생들이 자원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던 일 하며 어려운 가정의 중 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일, 홍수와 각종 재난 시에는 팔을 걷어부치고 현장으로 달려 가서 복구를 돕던 일,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누는 부유한 나라가 되어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전환, 저개발국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켜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기 까지 다 손으로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왔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도해 오신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회고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시작했던 일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달려온 33년의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 꿈같은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보람과 뜻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세상 끝날 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치지 않는다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 나고 있고 이웃들은 홀로 헤쳐 나가기가 너무 버거워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는 이웃 선의 재단은 오늘도 그 이웃을 향해 손을 뻗고 달려 갈 것입니다. 선의를 위해 마음과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

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한국 선의 복지재단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향후 33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이사회 회장 | 하숙란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해외

사업

베트남 법인*Since 2005*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

주소 | Thon Luong Chau, Xa Tien Douc, Huyen, Socson, Hanoi
연락처 | Tel. 84-4-3595-2843

씩선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로
월 평균 2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지역 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활동

무료 재활 물리치료 | 환자 가정방문 및 재활 훈련 | 무료 이동 진료

Since 2013

호치민 지부

주소 |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연락처 | Tel. 093-561-2492

호치민 지부의 대표 사업인 희망 나눔 야학 교실은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시골 사람들은 지역 이주 보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움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근무지 이동 시 절차 없이 이동하게 되어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또 가정 형편상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 희망 야학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활동

희망 나눔 야학사업 | 환경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
고아원 지원 등 활동

우크라이나 법인*Since 2013*

주소 |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Sunny Foundation in Ukraine'
연락처 | Tel. +38067-130-8089 / E-mail. ukrkim@gmail.com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는 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 하였고 교육사업(대학교 지원, 한국어 교육), 출판사업,
복지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활동

'Sunny Foundation in Ukraine' NGO 설립(우크라이나 정부에 등록) | 우크라이나
국립 어린이 심장재단, 병원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내 심장병 아동 수술지원

LA지회*Since 2008*

주소 |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연락처 | TTel. 714-773-5578, 714-726-5948 / E-mail. mamajoo@gmail.com

2008년에 설립된 선의 LA지회는 노숙자 식사제공을 위해 모이던 10여 명이
발족 멤버가 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활동

LA 다운타운 노숙자 지원 | 모자 200개 나눔 |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Summer School졸업식 참석 및 After School을 위한 증축 지원금 전달

뉴욕법인*Since 2003*

주소 | 35-74 162St Flushing NY 11358
연락처 | Tel. 516-721-8101 / Fax. 347-732-9459

뉴욕법인은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모여 꾸준한
기도모임을 통해 2003년 설립되었으며,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사역,
북한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며, 2007년부터 뉴욕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활동

선교사의 집 운영 | 할렘 노숙자 지원

국내

사업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연락처 | Tel. 02-886-9941 / Fax. 02-874-4048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 서비스제공, 사례관리사업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입니다.

2015년 활동

꿈끼 페스티벌 | 어버이날 행사
재가 어르신 나들이 |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

선의 어린이집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연락처 | Tel. 02-885-9770 / E-mail. sunhee9770@hanmail.net

선의 어린이집은 아름다운 생각과 말,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 성을 기르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활동

자연현장학습 및 견학 | 신나는 더위 사냥_워터스토리
고유명절 행사_설날 | 중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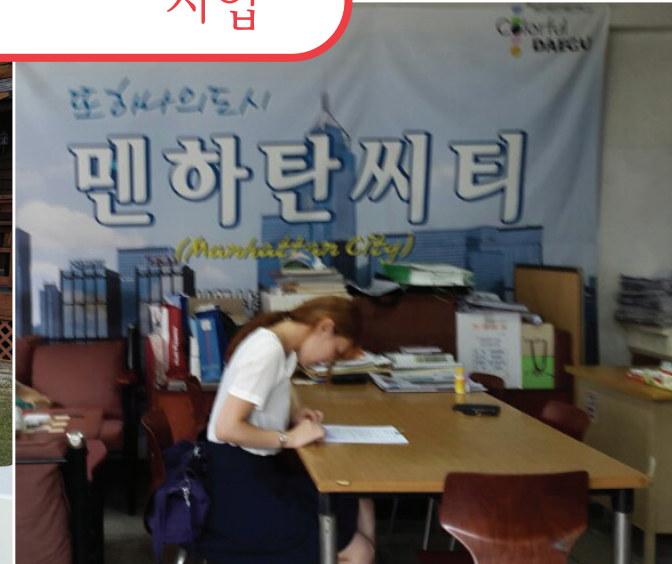
영동 연수원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연락처 | Tel. 043-744-8438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힌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용하고 한가로운 환경 속에서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 활동

자연현장학습 및 견학 | 신나는 더위 사냥_워터스토리
고유명절 행사_설날 | 중추절

대구 지회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연락처 | Tel. 02-886-9941 / Fax. 02-874-4048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형태의 어려운 이웃에게 순수한 선의로 마음을 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꿈꿉니다.

2015년 활동

장애인 돕기 | 신장병 환자 돕기 | 결식노인 무료 급식 지원
일탈 청소년 선도

경남 지회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연락처 | Tel. 010-9508-6586

마음이 있어도 길을 찾지 못해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후원자를 찾아서 그들의 선의를 모아 삶의 뒷안길에서 외롭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5년 활동

사랑의 집 외국인 근로자 식사봉사 | 외국인 근로자 쉼터 후원
아동 장학지원

경주 지회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송삼남길 23-4
연락처 | Tel. 010-9508-6586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활동

다문화 가정 | 결손 가정, 조손 가정 아동 45명에게 매월 장학금 지원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

두근두근 가슴 뛰는 내일을 선물 합니다.

파래진 입술과 피부, 더딘 성장, 여러 합병증...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에 결함이 있는 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은 85%가 원인불명으로

발병 이유를 알기 어렵고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과 같은 해외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진찰 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한 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심장병 환자의 수는 늘어가지만,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차수	국가	인원	수혜아동	성별	나이	수술병원
68차	필리핀	1	REMO XANDREI VILLASQUEZ	F	11	부천세종병원
69차	베트남	3	PHAM THI THAO VAN	F	4	부천세종병원
			LE THI HANG NGA	F	5	
			HOANG TUAN ANH	M	3	
70차	필리핀	2	ORTIGUERRA JIZELLE AMBROIO	F	12	부천세종병원
			TANAGA PRINCE ANDREW AMBORGO	M	6	
71차	라오스	6	INTACHACK NOKNOY	F	5	건국대학교병원
			KEODOUANGSIN SOUKNYLAN	F	11	
			PHOMMACHANH TOULAPHONE	F	2	
			XAYASITH VANITXA	F	8	
			PHOMXAY VINA	F	2	
			HOMSIN NOY	F	8	
72차	베트남	3	NGUYEN DUC NGHIA	M	6	
			CU VAN SU	M	7	
			LO THI NGA	F	3	
73차	필리핀	6	MANALANG CHARISE ERICH DELA ROSA	F	6	부천세종병원
			ENTERIO LUJILLE KIM TAGALOG	F	10	
			GALLEGO RYZEN GRACE ONG	F	4	
			ESCALORA GEEROM JAMES NOVALES	M	7	
			HAYAG RUBIE CORONADO	F	5	
			CABATIC FRANCINE CLAIRE MENDOZA	F	13	

선천성 심장병 수술 어린이



68차 | REMO XANDREI VILLASQUEZ



69차 | HOANG TUAN ANH



69차 | LE THI HANG NGA



69차 | PHAM THI THAO VAN



70차 | ORTIGUERRA JIZELLE AMBROIO



70차 | TANAGA PRINCE ANDREW AMBORGO



71차 | HOMSIN NOY



71차 | INTACHACK NOKNOY



71차 | KEODOUANGSIN SOUKNYLAN



71차 | PHOMMACHANH TOULAPHONE



71차 | PHOMXAY VINA



71차 | XAYASITH VANITXA



72차 | CU VAN SU



72차 | LO THI NGA



72차 | NGUYEN DUC NGHIA



73차 | ENTERIO LUJILLE KIM TAGALOG



73차 | CABATIC FRANCINE CLAIRE MENDOZA



73차 | ESCALORA GEEROM JAMES NOVALES



73차 | MANALANG CHARISE ERICH DELA R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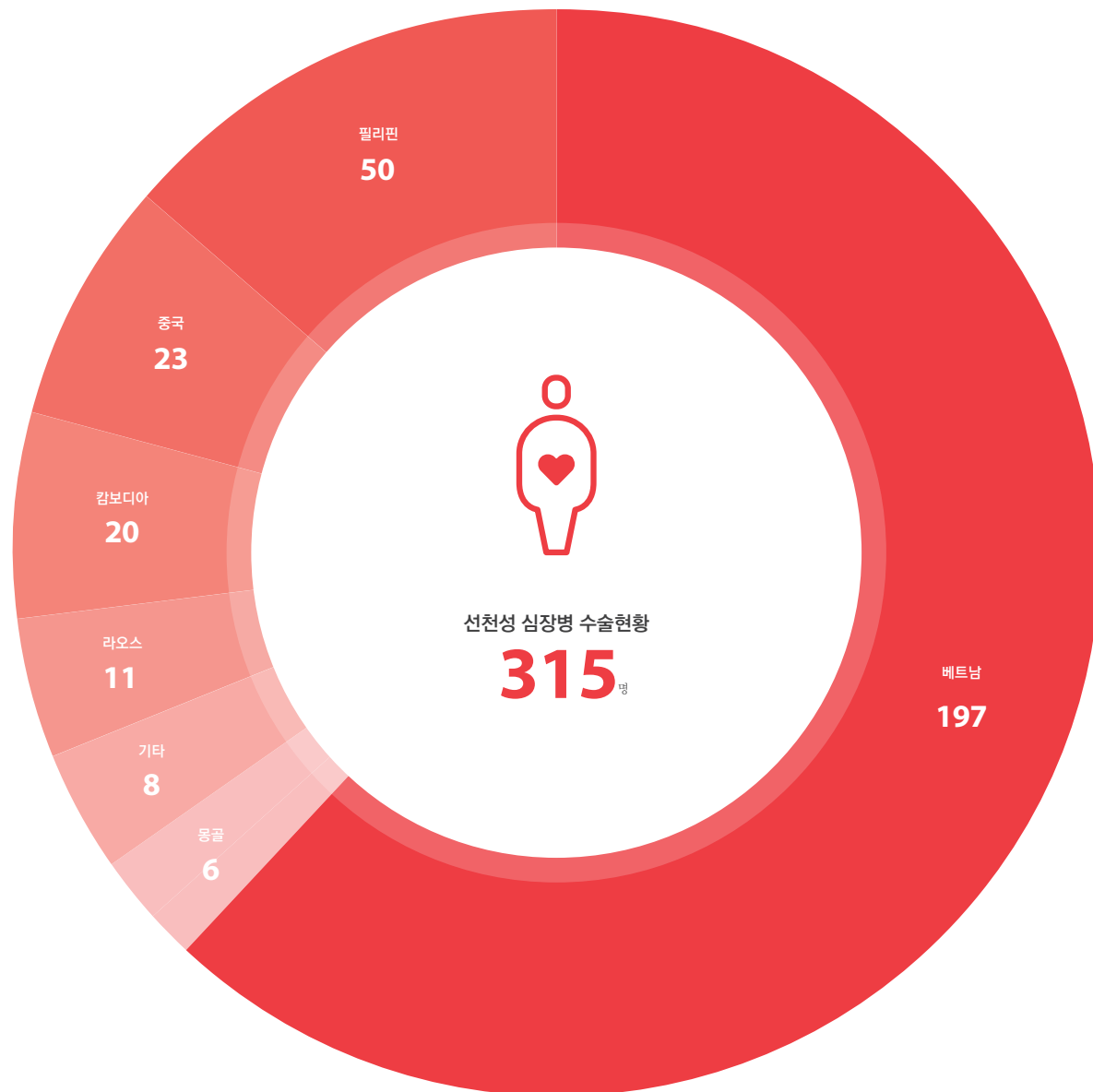


73차 | HAYAG RUBIE CORONADO



73차 | GALLEGO RYZEN GRACE ONG

국가별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현황



현재(2015년 11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총 315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감사의 글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선한 뜻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온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3년 전 세 분의 기도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로부터 시작된 선의은행(구 한국선의복지재단 명칭)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사건을 항상 묵상하게 됩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가 죽었고 두 엄마는 살

아있는 한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어 솔로몬의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공평하게 아기를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주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진짜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물질세계에서는 반반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으나 생명과 영혼의 세계에서는 반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려 하였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없습니다.



Passion이라는 뜻에는 열정과 희생이라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식지 않는 열정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2015년은 네팔 대지진, 시리아 난민사태, 파리 테러사건, 메르스 와 에볼라 등의 질병과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았던 한해였습니다. UN에서는 지구상의 빈곤을 종식시켜 가기위해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No one left Behind!라는 slogan으로 세계가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제시된 17개의 목표를 갖고 빈곤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2015년 2월 국제개발민간협의회(KCOC) 회장단체로 선출되어 132개의 NGO 단체를 대표하여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KCOC는 한국 NGO들의 역량강화, 세계시민사회 교육, 인도적 지원 사업, 긴급구호사업, NGO봉사단 파견사업, 해외 NGO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미래의 33년도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 문영기

조직도

법정이사회

이사장 | 문영기

이사

권규상, 신용규, 여주기
이필남, 이영희, 오혜선
정진호, 조경옥, 하상진

감사

김학진, 윤기원

운영이사회

이사장 | 문영기 회장 | 하숙란

여주기(전 이사장), 오혜선(증경회장), 조경옥(증경회장)
김옥훈, 김정혜, 권향자, 문정인, 문정임,
박숙자, 박영숙, 신귀례, 이필남, 여옥기, 조문자,
주기옥, 최정애, 황명덕, 권분선, 권수현, 이미경

한국선의복지재단 국내·외 지회/법인 및 사업장

한국선의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T. 02-884-5510 | F. 02-884-5512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T. 02-886-9941~3 | F. 02-874-4048

선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양녕로 16길 44-9 1층
T. 02-885-9770

경주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남길 23-4
T. 054-773-8212 | F. 054-773-8213

경남지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T. 010-9508-6586

대구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040-24번지
T. 053-761-9975

영동선의연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T. 043-744-8438

뉴욕법인

35-74 162St Flushing NY 11358
T. 516-721-8101 | F. 347-732-9459

LA지회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T. 714-773-5578, 714-726-5948

베트남지회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 093-561-2492

우크라이나 법인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T. +38067-130-8089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걸어온 길

1982.12

3인의 기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은
내어드리겠다는 세 여인의 기도.
한국선의은행은 세 여인의 헌신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7.12

봉천동 달동네 4-2번지

관악구 봉천동에 달동네 4-2번지에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나누겠다는 이웃들의 마음이 모여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1994. 3

52명

봉천동 아이들을 위한 선의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올망졸망, 초롱초롱
눈망울의 아이들 52명과 함께
선의어린이집은 봉천동의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2001. 1

카잉 짱

HOANG NUYEN KHANH TRANG / 2살

베트남에서 온 카잉 짱은 첫
심장병수술 지원자가 되어 한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카잉 짱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돌아간 이후,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수술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3.6

Cam on

Cam on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베트남어입니다. 심장이 약한 베트남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베트남 정부에서도 인정해주셔서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기위한 귀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2005. 11

250명

매달 진료하는 숫자

베트남 하노이에 적십자선의
한국병원이 준공되어 무료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매달
250명이 찾아와 마음 편히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 진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곳을 작지만 최고의
병원입니다.



2009.9

560명

매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첫 번째 한국어 선생님이 파견된
이후 매년 56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2015.9

309명

수술 받은 인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의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9개국의
어린이들이 심장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원 기관

후원처: 신촌성결교회, 부천세종병원, 한국심장재단, 건국대학교 병원, 바보의 나눔, 롯데면세점, 유진크레베스



필리핀 2014년 12월
1명 수술(레모)



베트남 2015년 1월
3명 수술 (따오번, LE THI HANG NGA, HOANG TUAN ANH)



필리핀 2015년 4월
2명 수술 (지젤, 앤드류)



라오스 2015년 9월
5명 수술 (바닛사, 녹노이, 노이, 비나, 녀이)



베트남 2015년 9월
3명 수술 (쿠반스, 응아, 응이아)



필리핀 2015년 11월
6명 수술 (GJ, 찰리스, 루질킴, 친, 루비, 젠젠)

후원보고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응원해주신 후원자 분들을 소개합니다.

기업

(주)뷰티채널
(주)한원컨트리클럽(김인식)
(주)황진축산
광개토여행사
금석봉송담추여탕
남서울교회
디와이홀딩스(주)서울지점

베트남성경읽기모임회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단법인삼동인타내서
삼성웰스토리(주)
서울네이션즈
서울덕수초등학교61회
신촌교회지회

로이스회
유진크레베스(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주식회사 푸드머스
창립멤버 운영이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마음약국

개인

강명자
강유경
강현숙
권수현
김경숙
김미정
김민애
김성오
김수정
김숙자
김승호
김승진
김신혜
김연희
김옥
김정란
김정숙
김정자
김지영

김태연
김태한
김태환(우크라이나)
김태희
김현진
김형철
김혜숙
김혜주
김화봉
김효찬
김태연
김태희
김희영
김희정
남궁수
남성주
문대기
문수지
문영기

문정인
문정임
문형호
민경희
민정기
박길준
박다은
박동찬
박소윤
박영배
박예은
박정미
박정애
박정화
박정환
박찬익
박학용
박현구

박현명(우리들약국)
백병령
백인호
백준화
변성경
서정우
손정자
손정진
송순득
송현숙
신영현
신진섭
신창국
안대현
안은지
안종향
양윤정
양정미
양지혜

양평누리해장국
여욱기
여주기
오세임
오지원
오혜선
오혜영
우동일
위희숙
유혜정
윤재원
윤재훈
윤정이
윤정혜
이경민
이경자
이경희
이기자
이동훈

이명진
이미자
이선미
이승형
이영신
이영자
이용신
이용희
이은희
이재열
이정순
이종국
이필남
이향준
이효
장효진
전경숙
전미령
전주영

정경순
정명희
정송자
정송자
정은실
정종업
정총희
정종기
정진욱
조경옥
조동수
조영란
조영숙
조윤자
조은영
지성은
진영희
천영옥
최남규

최용남
최원중
최원형
최정애
최해경
최해선
최효리
표승희
하숙란
한왕석
함준문
해피빈
허난숙
현숙미
홍순찬
황명덕
황영호
황진선

2015년 해외결연 아동 현황

필리핀 지원 아동수	          	10명
베트남 지원 아동수		1명
라오스 지원 아동수		1명
볼리비아 지원 아동수	          	10명
캄보디아 지원 아동수	    	5명
인도네시아 지원 아동수	    	5명

총 지원 아동 수 32명 총 6개국 지원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뽀스가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랄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아이를 키우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 뽀스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두번이나 가서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아프지 않으니까 성격도 더 적극적이 되고 다른 학생들도 잘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뽀스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1결연으로 맺어진 후원금은 해외 저개발국가 아동 32명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에게는 진료비 및 약값 등과 같이
 의료비를 위해 사용 되어지고 학습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에게는
 학용품, 책 구입 등과 같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1:1 해외아동 결연 후원이라는 희망의 연결고리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마음을 이어 주세요.

해외 아동 1:1 결연 후원 문의 문의 Tel. 02-704-5510 | E-mail. sunnykorea2@hanmail.net



이 사진은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통역을 도와주시는 김차린씨의 작품입니다.

Yellow ID TALK

한국선의복지재단 친구추가 하세요.

카카오톡 친구탭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ID검색에서 ID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발행일 | 2015년 12월 7일
발행처 | 한국선의복지재단
발행인 | 문영기
기획·편집 | 한국선의복지재단 홍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전화 | 02-884-5510
팩스 | 02-884-5512
홈페이지 | www.sunnykorea.org
디자인·인쇄 | 슬로워크